

지리학자의 공공직 참여에 관한 연구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권용우, 이현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국토정책위원회)

1. 서론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지리학과가 신설되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 지 어언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50년이라는 세월은 하나의 학문을 정착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학은 한국사회에서 그 연륜에 상응하는 인지도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지리학이 일반에 주변부적인 학문, 소수 학문 정도로만 인식되어 있는 까닭에 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한 후 사회로 진출할 때 취업전선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는 직종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분야의 일에 종사하게 되어 4년 동안의 전공교육을 무위로 만들고 또 한번 사회생활을 위한 훈련과정을 거치는 이중적 낭비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 진학시 우수한 인재들이 지리학 전공을 외면하게 하고 지리학 전공을 원하는 전체 학생의 수가 감소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 현재로서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연마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교육계와 연구직으로의 진출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분야의 고용기회는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있어 매년 배출되는 지리학 학위자의 수요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사이상의 학위를 획득한 고급인력들의 취업시장은 더욱 열악하여 고등 전문교육을 받은 지리학 인재들의 적체 현상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계만의 공급으로는 지리학전공자들의 과잉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리학계 전반에 확산되면서 한국지리학계가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 노력이 기울여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현재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하여 향후 지리학의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리학자들의 공공직으로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지리학 발전을 추구하고 지리학 전공자의 사회활동영역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하여 프랑스 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지리학계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프랑스는 근대지리학이 태동된 나라 중의 하나로 오랜 학문적 전통과 두터운 연구인력을 보유한 나라이다. 그러나 프랑스 지리학계도 배출해 내는 지리학 전공자들을 지리학계에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고용직종에서 만으로는 전부 소화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프랑스 지리학계는 오래 전부터 지리학 전공자들의 취업

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과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 지리학계의 응용지리학 Commission이 1998년 1월 프랑스 상원의회 콜로키움 형식으로 진행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프랑스 지리학의 정치참여를 고찰해 본다. 연구의 진행은 첫째, 프랑스 지리학 전공자들의 프랑스 공공직 참여 현황과 둘째, 직접 공공직을 수행하는 지리학자들이 소개하는, 공공직 참여로의 지리학 활동영역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리학자이면서 시민이며 정치가의 입장을 견지하여야 하는 공공직 참여자들의 태도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연구는 전문직 지리학자들의 공공직 참여에 대한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전개한다.

아쉽게도 프랑스 지리학계에서조차도 공공직에 참여하고 있는 지리전공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나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년 토론되어 오는 프랑스 지리학계의 정치참여에 대한 단편적인 논의를 소개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제한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박사수료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를 전공직 지리학자라고 칭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같은 중앙의회 의원들과 지방자치 단체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 당선된 정치인들을 선출직 공직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 한 지역의 관리와 치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직(예 : 지방자치단체 장)을 의사결정자 라고 구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2. 프랑스 지리학 전공자들의 공공직 참여 현황

프랑스 지리학계는 1961년 제 1회 스트라스부르그 콜로키움 개최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프랑스 지리학술 대회와 한 세션으로 응용지리 분과를 운영하면서 지리교육 및 전문 지리학자들의 사회전출 부문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1500여명이상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박사학위 수료에 해당하는 전문교육 (M.S.T., D.E.A., D.E.S.S.)을 이수한 지리학 전공자로 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리학 교육계에서 흡수하지 못한 지리학 전공자들에 대한 취업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지리학계의 부담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계 다음으로 지리학자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는 정치계로의 활동영역의 확대를 고양하고자 실제 정계에 몸담고 있거나 공공직에 종사한 경험을 지닌 지리학 전공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리학자의 정치계 진출 가능성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전문직 지리학자들 중 공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수는, Trombinoscope의 발표에 의하면, 약 29명으로 17명의 국회의원, 9명의 상원의원, 3명의 현직 장관이 공공직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들은 모두 지리학자로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대개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지리학자가 교육직을 겸임하면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지리학자

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정치인으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매우 특이하며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항이라고 하겠다. 특히 의사결정직에 해당하는 Maire¹⁾로서의 공공직 참여가 많은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회원록에 해당하는 "Répertoire des géographes français (2002)"에 의하면 현재 7명의 지리학자가 Maire의 직위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중 6명이 Maire와 교수 (professeur) 및 강의전담교수 (Maître de conférence) 직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교수들의 공공직 참여가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Répertoire des géographes français의 기록으로 프랑스 공공직 참여 실태를 조사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²⁾ 현재 프랑스 지리학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이 자료에 수록된 자료를 가지고 프랑스의 실태를 간략하게 그 경향만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한다.

표. 프랑스 지리학 전공자의 공공직 참여 유형

	정치분야 참여				행정부 분야 참여			기타
	지자체 의회	위원회	Maire	프로젝트 참여	DATAR	국제기구	공무원	
일-드-프랑스		2	1	1	2	3	3	3
지방	2	16	6	1				

출처 : Répertoire des géographes français, Paris : CNRS-UMR-PRODIG, 2002.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프랑스 전문직 지리학자들은 정치분야로의 공공직 진출이 행정부 분야로의 진출보다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며 중앙정부의 공공직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직으로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수도권에 해당하는 일-드-프랑스 지역에서의 공공직 진출보다 지방에서의 진출이 더욱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확한 통계수치를 제시할 수 없지만 프랑스에서 지리학자들의 공공직으로의 진출이 연령층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선출직에 해당하는 지자체 의원이나 Maire 직으로의 진출도 많은 수요는 아니지만 꾸준히 이루어지는

- 1) 시장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서 우리나라 읍, 면, 대도시의 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시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지역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 2) 아쉽게도 이 회원록은 학계에 종사하는 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박사 수료이상의 전문 지리학자들의 학위와 연구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학계이외에서 활용하는 지리학 전공자들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고 수록된 학자들도 아카데미한 활동이외의 것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서 통계에 신빙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공공직 분야의 활동을 수록한 경우에도 현재의 활동만을 그 직위로만 표시하고 있어 각각의 전공직 지리학자들의 과거의 경력을 알 수가 없어 자료활용에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등 프랑스 지리학자들의 공공직 참여가 일반시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수와 Maire 직을 겸하는 지리학자 중에는 이러한 공공직 참여의 경력이 매우 오랜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G. Dorel이라는 원로 지리학자는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Maire와 대학에서의 강의를 함께 훌륭히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지리학자들의 공공직 참여범위는 여러 부문에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특히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관련 부문, 환경 및 자원 보전 관련 부문, 산업 및 상업 관련 부문, 국제적 협력과 관련된 부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의 유형도 입각하여 정부 장관으로 활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치리를 담당하는 관리직, 정치인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지식을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로 제공해 주는 자문직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대다수의 공공직 참여자들은 공공직 참여가 지리학자로서 지리학을 완성하고 보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R. Couderc 교수는 지방개발 및 응용지리학과 관련된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7세의 나이로 정치권에 입문하여 16년 동안 4가지의 공공직을 역임하면서 자신의 응용지리학자로서의 다양한 지식을 보완하고 풍성히 함으로써 지리학자로서 사회적 활동 분야의 확대가능성을 새롭게 개발하였고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접목시킴으로서 현장감있는 실제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3. 공공직 참여로의 지리학 활동영역 확대 가능성

1) 지리학과 정치간의 상관관계

시장이면서 상원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Claude Saunier은 콜로키움의 Introduction을 통해 프랑스 지리학계의 공공참여에 대한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프랑스 지리학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리학을 전공하는 것이 공공직에 참여하는 데 매우 유리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우선, 지리학과 정치과의 상관관계를 영토(territory)라는 개념정립을 통해 지리학과 정치과의 연관관계를 쉽게 찾을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즉, 정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권력의 행사는, 현재까지는 지리적 공간인 '영토' 또는 '땅'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와 지리학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특히 베를린 장벽의 붕괴된 이후 다년간의 전쟁으로 인한 유럽국경선의 재정비가 진행되는 과정이며 세계화·개방화로 인한 새로운 공간개념의 대두로 Territory라는 정치·지리학적 단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방화의 추세와 발맞추어 region이라는 새로운 단위의 영토개념이 부상하고 있으며 FTA 등과 같은 국제적 협약으로 형성되는 지리적 단위가 더욱 중요성이 부여받고 있어 정치분야에서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리학의 영토에 관한 접근 방법론이 정치적 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게 될 것이다.

좀더 국지적인 범위에서의 지리학과 정치간의 관련성은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선출직 의사결정자들에게의 일상적 업무에서 찾을 수 있다. 지자체장의 일상업무가 모두 지리적 공간상에서의 정치·행정상의 문제해결로 귀결되고 있으므로 지리학과 정치간의 관계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바로 도시문제, 교외지역 문제, 사회적 박탈, 도시개발, 환경의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는 자연적 지역단위, 구역 (bloc) 등 어떠한 단위에서 발생하던지 간에 모두 지리적인 공간인 '땅(영토)'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인 지리학자들은 일상적으로 응용지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새로운 지리적 행정단위가 유럽 정치마당의 핵심적 논제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지리학의 정치활용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기초 자치단체(코뮌)간의 협력, pays (농촌정주권), 레지옹 등이 기존의 행정단위이외에 부상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지리적 단위들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공간 행정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기술과 개념이 필요하고 이때 중요한 개념이 지리학적 삶의 터전을 이루는 연관성에 관한 것이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행동영역에 대한 고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전방의 변화 추세가 지리학자들의 공공직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정치권의 변화이다. 지방분권법에 의하여 선출직 정치인들의 공간개발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져감에 따라 지리학자들의 정치참여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둘째, 공간조정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였는데 바로 GIS이다. GIS는 향후 공간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므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공간 관리 능력을 배양한 지리학자들이 정치계에서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GIS를 활용하는 new 테크놀로지 학문의 지리학은 단지 추상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 실천적인 면에서도 공간을 분석, 총괄, 문제를 파악하는 법, 의미를 파악하여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학문으로 발전될 수 있다.

2) 지리학 전공자의 공공직 진출의 유리한 조건

프랑스 지리학계가 지리학을 전공하는 것이 공공직 참여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지리학의 공간을 다루는 연구 풍토와 전체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총괄하는 성향을 가진 지리학적 연구 특성을 들 수 있다. 정치적으로 공간을 다룬다는 것은 인간 삶의 터전의 모든 부분과 관련된 문제를 관찰하고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타 학문분야가 사회의 일부분만을 고찰하는 것과 달리, 지리학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삶의 공간과 함께 전체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공간의 관리자로서 매우 중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리학이 인간 환경에 대한 다양하고

폭 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오늘날 더욱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정치·공간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여러 전공분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나 연구의 경우 지리학자를 coordinator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지리학이 여러 분야에 걸친 폭넓은 지식 덕분에 각각 분절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호 이해시키고 조율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분석 작업을 할 경우 지리학자들이 현장 답사 관련 경험 및 지식, 글로벌한 분석, 여러 분야에 걸친 폭 넓은 지식 등의 덕분에 특정 분야에만 전문가인 행정관료들 보다 훨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지리학은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날의 사회현상은 하나의 법칙, 하나의 개념으로 단정해서 설명할 수 없으며 논리적 접근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할 때 지리학이 지닌 문제접근 방법이 매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지리학자는 특정 문제에 접근할 때 자연의 힘뿐 아니라 개인적 특성 및 역할에 대해 인식하며 우연성 및 찬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시간의 흐름의 중요성과 그 냉혹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리학자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며 불가능한 것을 달성할 수도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간문제를 접근하는 태도가 현실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셋째, 지리학의 현실분석과 미래예측적 특성이 향후 지역의 공간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 지리학적 공간 구조 이론을 통해 현재의 공간을 바탕으로 미래의 공간의 문제점을 예견하고 바람직한 공간 조직과 지역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많은 현장 답사의 경험으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성공 및 실패 사례의 비교연구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지역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리는 예측이며 치유보다 예측이 낫다'라는 속담을 생각할 때 지리학자의 공간정책 참여가 당위성이 더욱 커진다.

넷째, 공간 인식에 대한 방법이다. 하나의 정치적 사안으로 등장한 공간은 여러 공간적 단위에 의해 중첩되어 형성된 지리공간이다. 아직도 많은 지자체가 영토적 관념에 기초하지 않고 일상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매일 내리게 되는 국지적인 결정은 단순히 소규모의 범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범주에서 막대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세계화의 진전으로 지역문제를 local한 단위뿐 아니라 regional한 단위, national 단위, international 한 관계에서 지리적 단위를 달리하는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때 지리학자들의 능력이 필요하다. 지리학은 발생된 전체문제를 공간적 관점에서 다룰 수 대표적인 학문분야이다. 지리학자는 지도를 통한 문제해로의 접근이라는 전통적인 지리적 접근방법에 따라 공간적 단위를 달리하는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지리학자의 활동영역의 확대를 위하여 지

도, 항공사진과 GIS에 대한 활동에 대한 훈련과 지식적 차원의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공공적 참여하는 지리학자의 태도

지리학은 세계의 전체성과 차이성을 동시에 설명하는 학문이고 사회의 현재를 이해함으로써 미래를 준비케 하는 능력을 지닌 학문이며 모든 사회과학분야에 대해 개방적인 성격을 지닌 학문분야이다. 따라서 정치·경제적 지도자들에게 유용한 학문이라 할 수 있으나 공공분야에서의 지리학 활용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요함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첫째, 공간을 다루는 범위의 적절한 선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타분야 뿐아니라 지리학자들도 전체와의 연계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문제의 부문별(sectoriel) 비전만을 다루는 우를 범하는 예가 허다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³⁾ 따라서 적절한 다층적 공간 분석 단위 적용한 접근을 통해 분절된 공간 조직 개발이 아니라 전체 영토적 연계성내에서의 공간조직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지도나 그래픽의 이해와 활용에 신중해야 한다. 특정 계층의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특정분야를 강조하기 위하여 지도를 왜곡되게 표현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되며 또한 제시된 지도나 그래픽을 정확한 관찰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특히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글로벌한 그래픽이나 지도상에서 무리한 간략화나 공간조직 도식을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정책과정에서의 민주주의적 결정방식에 대한 태도이다. 지역정책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시스템인가?하는 것에 대한 고려이다. 개인의 이익이 항상 공공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간을 분석할 능력과 미래에 대한 예견능력을 결여한 사람들이지만 현실적 이익이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지리학자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Bastié교수는 '왜 지리학과 정치적 행동이 정확한 과학이 되기를 원하는가? 왜 지리학과 정치적 행동간의 관계가 논리적이기만을 바라는가?'라는 질문으로 그 답을 대신하고 있다. 그는 공공직에 진출한 지리학자들이 실용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자신의 의견과 민주주의의 결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민주적 의사결정에 수긍하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지리학자가 모든 진실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절대로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타 학문분야의 의견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결정이나 다수 시민들의 의견에 굴복하는 겸손한 자세를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한번 변화된 공간을 다시 복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술관료가, 모든 진실을 아는 듯이, 홀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또한 잘못된 태도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넷째, 지리학자들이 공공직에 참여할 때 정치권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

3) 이러한 과오는 특정 단위를 분석단위로 한 지역개발 계획안에서 많이 나타난다. 지역적 구조만을 고려한 지역 공간 재조직은 구가 전체적 공간구조와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필요하고 역으로 지리학자가 과도하게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리학자들이 공공직에 참여할 때 각각의 역할에 알맞은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자는 역할을 다른 직위의 역할과 혼합하는 일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전문직 지리학자가 의사결정직의 영역까지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리학자, 도시계획자, 지역계획자 또한 전문가, 전문의원은 의사결정자가 아니다. 전문가는 자신의 의견개진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시장이나 지자체장은 자신의 정책결정에 책임을 져야하고 재선거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하므로 피선거인단의 요구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자는 전문직 지리학자와는 다른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럼 전문직 지리학자이면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지리학자의 경우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하는 문제는 각자의 학자적 도덕과 시민으로서의 의식, 정치가로서의 인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Bastié 교수는 나타내고 있다.

5. 결론

프랑스 지리학계는 지리학의 전체적 시각, 다양한 지식함양, 접근법적 특성, 공간단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새로운 공간 관리기술의 활용 능력 등의 지리학적 특성이 지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공공직으로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점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 환경, 부문적 경제, 관광개발, 국제정치 분야 등이 지리학자들이 매우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는 공공직 분야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리학계가 아카데미한 분야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공공직 분야로 그 활동분야를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리학 내부적으로는 응용지리학적 지식을 발전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지리학적 전문지식을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프랑스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논의해 보면 지리학 전공자가 공공직으로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첫째, 공공직을 수행할 때 필요한 타 분야의 지식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 및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리학 내부로는 지리학 특정 분야에 국한된 지식 습득을 지양하고 전체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리학 전반적인 지식의 습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공간관리 도구로 인식되고 있는 지도 및 항공사진, GIS의 활용을 더욱 발전시킬 때 한국 지리학계의 공공직 참여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